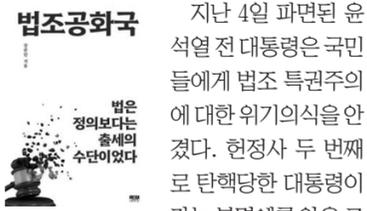


# ‘윤석열 파면’으로 파헤치는 법조 권력의 실태

법조공화국  
강준만 | 인물과사상사 | 1만6000원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법조 특권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을 안겼다. 헌정사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라는 불명예를 안은 그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회·경제·정치 등 전반에 걸친 국가적 혼란과 후퇴를 야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그간 흑백논리를 펼쳐며 ‘공정’이란 단어를 남용해 왔다.

3년여 만에 끝난 그의 임기 동안 진영논리와 편익적 선악 이분법은 극렬히 작동하며 분단국가를 더 갈라지게 했다.

한국은 민관합동으로 세운 법조공화국이다. 법조를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와 ‘정치의 사법화’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 수준이며 검찰과 대법원이 경찰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만 작가는 이 책을 펴내며 우리나라에서 법은 정의보다 출세의 수단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지난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생방송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했다. 강 작가의 주장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법조공화국의 비극은 법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 엘리트들을 위한 특권의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법조 특권주의’의 실속형 특권주의로 ‘전관예우’를 꼽았다. 법조계에 깊이 뿌리 내린 전관예우는 어느새 ‘사회 신뢰를 쪼먹는 암 덩어리’로 커졌다. 후진적

악습인데도 사라지지 않는 데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꼬집는다. 국회의원들마저 평소엔 전관예우를 맹비난하다가도 막상 자기 발등 위에 불이 떨어지면 전관 변호사를 구명출처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줄기차게 반복된 전관예우와 관련된 대(對)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현실적인 개선책을 모색해 볼 때가 됐다는 게 강 작가의 주장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법조인 출신이 한국 정치판에 대거 포진된 점에 관한 근본적 원인을 살피볼 필요가 있다.

법조 출신 정치인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선거에서 낙선해도 언제든지 변호사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된다. 이는 ‘변호사 모델’이 한국 정치판에서 잘나가는 정치인의 모델이 된 것을 의미한다. 법과 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을수록 사법고

시의 인기는 치솟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법을 다룰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해 권력과 부를 동시에 쟁취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자 하는 갈등을 키운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와 특권의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높았으며 사법고시는 ‘코리아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속성코스라는 걸 말해주는 ‘사회적 증거’가 됐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법조계의 특권 의식으로 키워낸 인물이 윤석열이다.

책에서는 윤석열의 몰락을 나아가 나라 시시즘 증독에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지난해 총선에서 역사에 남을 압도적 참패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저버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그가 자기 객관화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현실 감각’조차 없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피력했다.

한편 강 작가는 1956년 목포에서 태어났다. 현재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펴낸 책으로는 ‘정치 전쟁’, ‘한류의 역사’, ‘박근혜의 권력 증독’, ‘짜가지 없는 진보’, ‘지방 식민지 독립선언’,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등이 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뻘어나가는 ‘산불 공포’ 기후 위기 극복으로 해답 찾아야

파이어 웨더  
존 배일런트 | 공출판 | 2만8000원



산불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달 경북 일대를 뒤덮은 산불로 인해 82명의 사상자와 역대 최악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전국에서 발화됐다. 이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각지에서도 유례없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 2019년 인도네시아, 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 포르투갈, 2023년 캐나다, 미국 하와이, 지난해 칠레 등이 대형 산불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떠안았다. 이에 학계에서는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실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기

후변화가 산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산불 피해 규모 역시 전 세계를 ‘산불 포비아’에 떨게 만들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대 275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도 2020년대에 발생한 국내 산불 피해 면적은 2010년의 약 7.8배에 달한다는 수치를 산림청이 발표했다.

이는 산불을 단순한 인적사고나 자연재해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기후 위기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불을 기후재난으로 분류해 통합적으로 관리·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 세계에 ‘산불 포비아’가 퍼져나간 지금 이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돼 주목받고 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올해 최고의 책’으

로 선정되며 찬사를 받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파이어 웨더’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적시에 고찰할 책이다.

작품은 전반부 불과 인간의 관계, 석유 산업이 우리 삶에 끼친 영향들을 살펴본 뒤 후반부에서 현대 기후학의 발전 과정을 되짚는다. 이를 통해 대기가 인간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 사례들을 통해 보여준다.

저자는 최근 10년간 건조한 날씨의 영향을 받아 지정되는 화재 시즌이 1년 내내로 바뀐 것이 기후변화가 화재에 있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고 일갈한다. 이같은 화재 양상은 이례적 현상 이라기보다 인류의 중대한 성취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라는 주장이다.

인류가 야기한 산불 피해의 쓰나미는 결국 인류가 단합해 극복해야 할 과제인 셈이다.

박찬 기자

## 인문학으로 살펴보는 시네마적 역설법

영화 속 인문학  
김윤태 | 간디서원 | 2만원



영화는 사실적 인스톰리와 서사를 포함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미학적으로 표현하는 예술 장르다. 책과 신문이 이성적으로 설득한다면, 영화는 감정적 호소력이 강한 매체다.

탄생 150년을 맞은 영화를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으로 풀어낸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책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치적 맥락과 권력관계, 이데올로기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파한다. 이미지로 표현되는 영화에 보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는 감독의 정체성, 배우의 성격, 연기력 등을 분석하는 기술적인 비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은 6부로 구성돼 20세기 초반의 작품들부터 최근 개봉한 영화들까지 시대와 국적을 망라해 조망한다. 실

험적인 작품들은 물론 장황 고다르와 왕가위에서 크리스토퍼 놀란과 봉준호까지 대중성을 아우른 거장들의 작품이 포함됐다.

1부 ‘우리 시대의 질문’은 자본주의의 본질, 계급과 불평등 문제, 핵무기 위기 등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을 되짚으며 분석한다. 2부는 계급과 불평등을 소재로 한 영화를 조명하며 문명의 의미, 인종차별주의, 페미니즘, 가상현실과 포스트모더니즘 문제들을 다룬다. 3부 ‘권력은 어떻게 인간을 통제하는가?’에서는 현대 사회 비판과 고독한 현대인의 에로스 및 ‘대부’로 대 표되는 범죄 영화 등을 소개한다. 4부는 ‘인류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우주 개발 문제, 전염병 위기, 기후 위기, 1인 가구 문제 등에 관련한 영화들을 살펴본다.

이어 5부에서는 책이 사라지고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 모습과 쉽게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에 관한 탐구를 관련 영화를 통해 풀어내고 6부는 장황 고다르 등 감독들의 ‘누벨바그’ 예술 영화 운동을 소개한다.

박찬 기자

AI 패권전쟁  
김경진 | 인문공간 | 3만5000원

인공지능(AI) 패권을 걸고 미국과 중국의 사활을 건 전쟁이 한창이다. 이에 한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탐구하는 책이 출간됐다. AI 혁명은 이미 직면한 현실이다. AI 산업은 정부의 행정 문화, 기업의 근로, 가정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 AI 기술 장악이 결국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가 될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책은 2부로 나뉘 AI로 인해 바뀔 한국의 미래 사회와 인력 문제 해결, 국가 간 치열한 기술 전쟁 등을 설파한다. 특히 AI 시대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생존 전략도 열거한다.



풍경의 뉘앙스  
김병호 | 문학수첩 | 1만7000원

시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경험적 감각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시인들의 세계를 탐구한 평론집이 출간됐다. 김병호 시인의 세번째 평론집 ‘풍경의 뉘앙스’다. 평론집은 총 4부로 나뉘 구성됐다. 그 중 1부 ‘2000년대 젊은 시인들의 시적 원형구조’에서는 2000년대에 등단한 젊은 시인들을 조명하며 이들이 표출한 상상력의 원형구조를 되짚는다. 3부 ‘당선 시로 배우는 시의 기술’은 신춘문예와 주요 문예지의 당선 작품을 통해 시인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한다.

봉준호 영화들  
이남 | 미메시스 | 2만5000원

봉준호 감독의 작품세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신간이 나왔다. 그는 사회·정치·경제를 아우른 자본주의의 허점에 정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펼쳐왔다. 데뷔작 ‘프란시스의 개’부터 최신작 ‘미키17’까지. 특히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물론 이들이 직면하는 사적인 문제들을 묘사하는 과정은 가히 그가 왜 천재인지를 보여준다. 영화 평론가 이남이 파헤친 본문에서 ‘낯설지 않으면서 낯설게 하는’ 봉준호 감독의 핵심 기술을 면밀히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